

어린 카네기의 속셈

‘세계의 강철왕’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카네기가 세 살 때의 일이다.

어느 날 어머니를 따라 단골 과일가게에 갔을 때 그는 어머니 곁에 서서 빨간 앵두를 먹고 싶다는 눈초리로 자꾸만 바라보고 있었다.

그것을 눈치 챈 가게주인 아저씨는

“애야, 먹고 싶니? 그럼 한 줌 집어서 먹어라.”

하고 친절하게 말했다. 그런데 웬일인지 카네기는 망설이기만 했다.“

”애야, 그 앵두 한 줌 집어먹어도 괜찮다니까.“

이렇게 아저씨는 도 한 번 말했지만 카네기는 여전히 손을 내밀지 않고 앵두만 바라본 채 주저하고 있었다.

이상하게 생각한 주인 아저씨는

”애, 그럼 내가 한 줌을 집어 줄테니 네 모자를 벗어서 받아라.“

하고 앵두 한 줌을 손으로 집어서 카네기가 벗어 들고 있는 모자 안에 넣어주었다.

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카네기에게 물었다.

”너, 아까 왜 네 손으로 앵두를 집어 먹지 않고 주인 아저씨가 집어 주기를 기다렸니?“

이때 카네기의 대답은 너무도 놀라웠다.

”엄마, 내 손보다는 그 아저씨의 손이 더 크잖아?“

과연 큰 사업가가 될 사람이 어릴 때부터 보인 비범한 기지와 재치! ‘잘 자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’고 했던가?